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길었던 성령강림절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구주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의 보고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집회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2012년 당회가 12월 9일 오후 1시 30분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초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 : 이형숙 곽혜자 권미숙 김수진 이미혜 최숙화 최재욱  
 다음 주 식당봉사 :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경선 구성실 김기성  
 오늘설거지봉사 : 최은미 최경미 이준하 김정우  
 다음주설거지봉사 : 김기성 박인혁 이지훈 박찬덕  
 새 교 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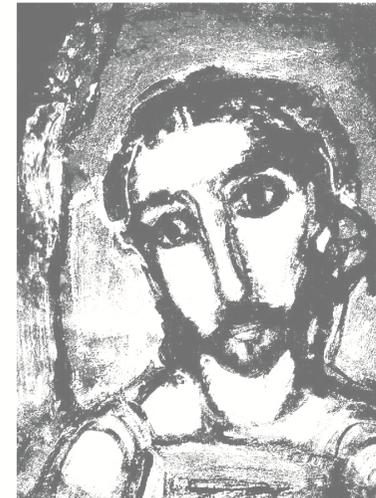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길었던 성령강림절기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고 한 해도 지나쁘고 저물어 갑니다. 짧아진 햇살을 아쉬워 말고 길어진 어둠을 벗 삼아 깊은 고요와 침묵의 시간을 마련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과 가야할 곳을 분명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

평화의 주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세계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수많은 이들이 무고하게 죽어갔습니다. 주님, 자신의 탐욕스런 지배욕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이들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전쟁을 통한 평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구명자 김경혜 김남종 오복순 김문주 김재환 김혜권 박재임  
 문홍일 박병구 박석희 조항미 박영희 박인혁 박지인 안길상 이형숙  
 양상철 박재란 양재성 오자영 윤정덕 구성실 이광섭 이종배 장원호  
 박성희 정복순 정완수 김재광 정종삼 조문규 진정숙 조순덕 최윤희  
 최재욱 이수정 추현영 하현철 최성애 허신열 홍선희 홍순구 안홍숙

### 감사헌금:

강순배 김용길 최영혜 박성호 이범석 류정욱 이재문 조관행 홍선희  
 조병무 차혜심 최미자 허성호 허호범 무명5

### 녹색꿈헌금:

문홍일 이미혜 오자영 이영순 나옴이2선교회 무명

### 생일감사헌금:

장혜숙	백혜숙	정두리	송임희
노순옥	박성희	박미영	배부레
최희영	최경미	교회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최종미	김진경
정경례	진정숙	문금석	안정숙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복순
박효선	허정운	허정운	배상순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김명희	안홍숙
정영선	서정순	홍춘기	서정순
박혜경	조항미	이기분	최영혜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 노을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만 떠돌다가/ 땅에 떨어져 죽지 못한  
 햇빛들은 줄지어 어디로 가는 걸까  
 웅성웅성 가장 근심스런 색깔로 西行(서행)하며  
 이미 어둠이 깔리는 燒却場(소각장)으로 몰려들어  
 몇 점 폐휴지로 타들어가는 午後(오후) 6시의 참혹한 刑量(형량)  
 단 한 번 후회도 용서하지 않는 무서운 時間  
 바람은 긴 채찍을 휘둘러  
 살아서 빛나는 온갖 象徵(상징)을 몰아내고 있다.  
 都市(도시)는 곧 活字(활자)들이 일제히 빠져 달아나  
 速度(속도) 없이 페이지를 펼쳐이는 텅 빈 한 권 冊(책)이 되리라.  
 勝負(승부)를 알 수 없는 하루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했을까. 오늘도 물어보는 사소한 물음은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텅텅 흔드는 것./ 午後 6時의 소각장 위로 말없이  
 검은 연기가 우산처럼 펼쳐지고/ 이젠 우리들의 차례였다.  
 두렵지 않은가./  
 밤이면 그림자를 빼앗겨 누구나 아득한 혼자였다.  
 문득 거리를 빠르게 스쳐가는 日常(일상)의 恐怖(공포)  
 보여다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살아 있는 그대여  
 오후 6시/ 우리들 이마에도 아, 붉은 노을이 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지?  
 아직도 펄펄 살아 있는 우리는 이제 각자 어디로 가지?

- 기형도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헌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부르짖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사십시오.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는 것이 평화입니다.

아멘. 자신의 삶에만 허덕일 뿐 낮은 자리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몸을 낮추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겠습니다. 그들의 한숨이 즐거운 노래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손성현 전도사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곽권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혜숙 권사	박아름 선생 민병배 집사

11월	영접위원	한상익 정한구 조선환 왕영순 강인숙 서정순
	헌금위원	한완식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순수한 마음과 단순한 의도

사람은 두 날개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벗어나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 두 날개는 바로 단순함과 순수함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단순해야 하고, 우리의 애정은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순수함은 그분을 이해하고 맞습니다. 무절제한 애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선한 행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유익만을 깊이 생각하고 또 추구한다면, 그대는 내면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성실하고 올곧다면, 모든 피조물이 인생의 거울이요 거룩한 교훈을 담은 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기에 작고 비천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내면이 선하고 순수하다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꿰뚫어봅니다. 누구나 내면의 상태에 따라 외적인 판단을 내리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디엔가 환난과 염려가 있다면, 악한 양심이 그것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쇠를 불속에 넣으면 녹이 사라지고 쇠가 새빨갳게 달아오르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모든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열정이 식고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면, 조그만 수고로움도 두려워하게 되고 쉽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일단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무겁게만 느꼈던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 자신을 성찰하라

우리 자신은 그리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 안에는 은혜가 없고, 때로는 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아주 작은 빛이 있을 뿐인데, 그것마저 부주의로 인해 금방 잃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을 행하고, 설상가상으로 잘못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에 의해 동요하고, 그것을 열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작은 문제는 책망하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큰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은 재빨리 느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고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를 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내면이 깊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먼저 자신을 돌봅니다. 또한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침묵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시하지 않으면, 결코 내면이 깊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에게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바깥에서 어떤 일을 보게 되든지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소홀히 했다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참으로 통일된 목적을 갖고 싶다면, 모든 것을 뒤로 제쳐놓고 오직 자신만을 직시해야 합니다.